

계란장수 할아버지

The Old Man Who Sell a Egg



글 | 洪鍾震

(Hong, Chong Jin)

농어업토목기술사, 수필가
한국농촌개발연구소 이사.
E-mail : hong37@empal.com

생물체가 생존 하는 데는 필요충분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적정량의 수분, 온도, 영양, 태양, 빛 등이 생존과 성장에 알 맞는 조건들 말이다.

몸에 필요한 영양식품을 공급 해 주는 할아버지 한분이 내 주위에 계시다. 이분은 아침6시 반이면 아침을 알리고 소리치며 계란을 팔러 다니시는 할아버지이다. 일년이면 달력에 붉은색 있는 날과 특별한 날만을 제외하곤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신다.

내가 미아동으로 이사 오기 훨씬 전부터 이 할아버지는 계란을 팔고 계셨다. 그러니 30여년이 훨씬 넘는 것이다. 내가 '83년도에 미아동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말이다.

계란은 많은 사람이 먹는 완전 식료품이다. 식료품을 파는 상점이면 전국 어디서나 계란

을 쉽게 살수가 있다. 그런데 유독 이 할아버지는 행상을 하면서 계란을 파신다. 아침이면 시원한 공기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땀 흘리며 육체적 노동으로 하루 일을 시작 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을 70세를 기준으로 하면 총 육십만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잠자는데 이십만 시간, 공부하며 준비하고 늙어 활동 못하는 시간까지 이십만 시간, 실제 사회활동 하는데 이십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계란장수 할아버지는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니 생전에 아마 오만여시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쓰고 사시는 셈 일게다.

계란장수 할아버지가 아침을 알리는 소리는 "기란 왔시오 기란, 기란 사시유, 기란 왔시오 기란, 기란 사시유...",하고 소리치고 다니신다. 고향은 물어 보지 않았지만 그의 말씨로 보아 충청도가 고향인 것 같았다.

우리는 가끔 그 할아버지의 계란을 사 먹는다. 계란을 먹어 보면 알의 크기도 굵고 깨끗하고 청결하여 맛이 좋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알을 사는 사람에게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게 한다.

할아버지는 이 계란을 팔아 슬하에 4남매를 공부시키고 생활하면서 80여 평생을 살고 계시 단다.

이 장사해서 학비조달이 충분하냐고 물으니 할아버지의 대답이 아이들도 제 각각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용돈은 벌어서 쓰고 했단다. 그러니 제대로 공부가 됐겠느냐고 하며 아이들 넷과의 가난했던 생활이 생각이 나는지 벌써 눈시울이 젖어든다.

여름이면 넓다 란 밀짚모자를, 겨울이면 큼직한 국방색에 귀막이가 달린 형짚 모자를 깊이 내려쓰고 다닌다. 두툼한 뿔테 안경을 쓰고 무뚝뚝하게 보이는 얼굴에 목소리마저 우렁찬 할아버지이다.

한번은 이렇게 파시면 하루에 얼마나 파시느냐고 물었더니 하루일당 보다는 조금 낮게 번다고 하신다. 계란 한판이 30개의 값이 3200원이니 꽤 많이 파시는 셈이다.

전에는 한 100여 판을 팔았는데 요즘에는 계란을 파는 농산물시장, 백화점, 이마트 등 여러 점포에서 팔고 있으니 요즘은 20여판 정도 팔린다고 한다. 계란을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고 하니 까 동두천에 양계하는 분한테 전화를 하면 이틀에 한번씩 배달하여 준단다.

전에는 조그마한 수레에 계란을 싣고 다니더니 요즘엔 오토바이에 트레일러를 달고 계란을 싣고 다니신다. 아들이 이젠 우리도 크고 공부도 다 했는데 무엇 때문에 아침이면 고생을 하시느냐고 계란 파시는 일을 그만두라고 성화를 한단다. 이런 운반수단을 바꿔준 것도 아들이 마련해 준 것이라고 은근히 자랑을 하신다. 평생을 하던 일을 왜 내가 지금 그만두느냐고 하며 운동도 되고 소일삼아서 하는 것이라 요즘은 힘도 안 든다고 한다.

계란은 값도 싸고 각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도 많다. 그 요리방법에 따라 생활에 편리한 음식이 만들어 지는데 삶은 달걀은 허기진 배에 요기가 되고, 부침개와 계란찜은 술안주와 밥반찬이 되고, 밀가루와 섞어 빵도 만들고, 마요네즈도 만들고, 소풍이나 등산 갈 때나, 단체모임 같은데, 손쉽게 가져 갈 수 있는 김밥도 만들고 계란 요리 종류가 다양하다.

그 할아버지를 보면 삶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으로 존경스럽게 느껴진다. 자기의 직분을 알고 보람을 느끼면서 계란을 파는 일에만

전념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분이라 생각된다.

계란장수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람은 오늘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 할아버지는 노년기의 삶을 아주 우아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이 할아버지를 보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키티링"씨의 말이 생각난다.

80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분이시다. 83세 생일날 아들이 말하기를 "이젠 연구 활동을 중단하시고 쉬시죠" 하였던니 키티링은 오늘날만 생각하는 사람은 흥하게 늙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신념으로 지키고 있는 노년기에 우아하게 늙는 세 가지 방법을 아들에게 말해줬다. 첫째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둘째는 무슨 일이나 함부로 참견하는 습관을 버리고, 셋째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남을 헐뜯는 일을 삼가라는 말을 하었다고 한다.

덧붙여서 노년기에 흥하게 늙는 다섯 가지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가 클수록 추하게 늙는다고 충고를 하었다고 한다.

두 분의 말씀은 흥하게 늙지 않으려면 나이 생각 말고 힘이 있을 때까지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계란장수 할아버지의 자손들은 지금은 다들 성장해서 이 사회에 각자 자기분야에서 아버지의 근면성을 닮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인생 운명이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하는 말이 이 노인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원고 접수일 2008년 3월 28일)